

倫理問題의 새 吟味

現代 휴머니즘의 本質 (4)

白鐵

文學의 倫理는 먼저 말한 바와 가티 文學의 基本精神이요 生命的인 問題인데, 우리 文學의 傳統이 그와 가티 倫理 떠난 或은 그것과 背馳되는 非倫理의 態度였스즉, 여기에 우리 傳統力 그것으로서 近代的인 文學을 일울 수 업고, 또 아무 倫理的인 準備가 업시 西歐의 文學을 바더드릴 때에 그 西歐文學이 順調롭게 우리 文學으로서 揚棄될 수는 업섯슬 것이다. 그것은 西歐文學을 輸入한 우리 文學이 그 西歐文學의 倫理를 참되게 理解하야 우리 文學의 主體로 삼지 못했다는 意味 以前에서, 무엇보다도 近代的 모든 文學主流와 文學方法을 벗어디리는 態度에 잇서 우리들은 가장 非倫理的이엇고 基本的으로 참된 文學의 精神이 缺如된 것, 바더드. 리아리즘의 道를 가져오되 그 리아리즘은 이 一方에 잇서 既明既知의 것인즉, 그것에 대하야 한번은 反逆함으로서 別個의 적어도 特殊한 리아리즘을 일어서야 할 것인데, 그러치 못하고 現代의 모든 創作方法 問題를 가져오되, 그 創作方法 問題는 우리들의 創造가 아니고 他人의 것인 바에야 우리들은 그것을 機械적으로 信賴하기 前에, 먼저 그 아페에 懷疑를 提出하고 스스로 自己矛盾을 發見함으로서 한번은 反省, 苦悶의 時期를 가질 것이 아니엇스리요! 文學을 探求하고 文學을 創造하는 本格的 精神이 既明的인 것에 對한 하나의 反逆의 情熱이어늘 根本的인 그 倫理의 態度를 無視하고 모든 文學主流와 方法을 輸入해 成功할 수가 업스며, 同時에 도라와서 所謂 現代의 必要下에서 文學의 遺産問題를 討論할 수 업는 事實이엇다.

文學遺産을 繼承하는 問題에 잇서도 우리 文壇人은 極히 單純한 생각을 가지고 잇는 듯하다. 文學遺産이란 것은 決코 現代 스포츠의 리레-[릴레이] 競走의 뱀부-交換과 가티 單純한 것은 아닐 것이다. 文學遺産을 계승하는 方法에 잇서 첫재의 誤認은 過去의 傳統을 現代에 그대로 가져다 살닐 것만을 問題하는 모양이나, 아무리 훌륭한 古典文學 傳統을 가진 文壇이라도 그런 便利한 境遇는 實際적으로 잇슬 수 업을 것이다. 도리혀 問題는 그와

反對의 境遇라는데 文學遺産 繼承의 困難한 理由가 있지 않을까? 文學遺産의 繼承에 있어서 傳統을 問題할 것은 그 傳統이 善이나 惡이나 하는 것, 그 말에 語弊가 있다면, 그 傳統이 現代的인 것과 對照하여 長이나 短이나 하는 點에 있지 안코, 그것이 善이든 惡이든 간에 그 文學의 重大한 要素냐 아니냐 하는 點에 있다고 본다. 비록 그 傳統을 소위 現實에 全般으로 비치여 볼 때에 全般으로 惡과 短에 屬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同文學의 重大한 傳統일 때는 얼마든지 그것을 對象으로 取하여 文學遺産의 資料를 삼어야 할 것이다. 文學遺産의 繼承이란 반듯이 長을 그대로 受繼하는 點에 일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反對로 反撥하는 點에도 遺産繼承 問題는 있는 것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大概是 多리혀 後者의 境遇가 大部分일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文學遺産의 繼承이란 賢明한 諸氏가 말하는 바와 가티 盲目的인 繼承이 아니고 正當한 批判 우에 되는 것이니까!